

남녀를 구분하고 학문으로 교육시키고 남녀를 동등 권을 주는 것이 못당 한다 그러나 공조 명조가 학문으로 인민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사나히지 분바르고 연지씩 었다는 말은 못 드렸으며 세계 만국에 처 국 평 현하 하는 이들이 다 사나히지 치마 입었다는 말은 못 지 못 하였고 암 특이 을 어서 날이 식는 듯이 리치가 업는지라 녀는 남조의 오장이나 다름 업시니 집 안에 잇 서 장부의 의복 음식이나 밧들고 조식이 나 나어 후사나 잇게 할터름이지 학문을 익화 무엇에 쓰며 지금 대한 형편이 일천 이백 만명 인구로서 가량 육백 만명은 놀 고 먹고 놀고 업고 하는 다 제 하고 다 문 그 절반 육백 만명만 가지고 말 할지라 도 비술이나 장사나 농사나 상고나 성의가 부족 하여 오히려 살기가 어렵다 하는 터 함을 녀는 녀지 학문을 길러 쳐 동등 권 을 줄 디경이면 더욱히 성의가 부족 하여 인민들 살기가 어려울 터이라 조 만고 이 리로 현하 각국 스고에 대 스업을 이루 나 가 대범 사나히가 만 하지 녀조가 만 하 다는 말은 듯도 보도 못 하였으며 녀조가 업시면 군 선부 조 형 데 친척이 어디서 낮스라 하니 남조가 업시켰으면 그 녀는 어디서 낮갓쇼 구라파 각국에서 남조가 녀조를 경대 함은 다름 아니라 남조는 원 리 강하고 녀조는 원리 약하고 고로 그 남 조의 강함으로 녀조의 약 함을 보호 함 이요 녀조가 남조의 동등 권을 가진 스는 은 아니라 대한 인민은 몇천년을 임의 구 습에 젖져 남녀가 유별 할지라 학문을 었지 함과 비호녀 강 약이 현슈 할지 동등 권 을 었지 주리요 오날날이 문제는 좌의가

독승 함으로 결당 하는 것이 못당 한다 고 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 분인내들이 연설 하기 를 하나 남이 세계 인성을 나으실 때에 사 나 하나 녀편이나 사름은 다 한 가지라 녀 조도 남조의 학문을 교육 밧고 녀조도 남조 의 동등 권을 가져 인성에 당함 스업을 다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어 늘 동양 공속은 었지 하여 녀조가 남조의 게 압제 만 밧고 죽은 목숨 못 지는 지 려디 간 만물의 가온뒤에 오직 사름이 귀 하 다 함은 총명이 잇는 연고인디 총명이 한 조의 게문 잇는 것이 아니라 녀조도 또한 총명 할 지 절인지 학문과 동등 권을 가져 남조를 더욱 리롭게 도을지라 그리 하여 드면 남녀 간에 고락을 한가지로 하고 스 업을 못 지 하며 성의를 고르게 하여 나 이 더 부강 하고 집안이 더 태평 홀터이 나 그럴 디경이면 었지 아릅답지 아니 할 리요 하더라 좌우편 연설이 다 못침의 회 위들이 다 말 하여 글으디 오날은 양력으 로 셋을 금은 놀이요 리 일 브터는 양력으 로 정월 초 일일인지 새해 브터는 대한 인민들도 남녀 간에 못 함으로 교육 하고 동등 권을 주는 것이 나라에 크게 유 조 하고 긴요 하고 자들을 하고 회를 파 한 후에 다 각기 도라 가더라

관보 호의 십이월 이십칠일

○의정부 의정 서리 외부 대신 조병식 집에 상쇼
비지 녀에 처분의 아리 못당하 이 못치 아니 할지라 못 기형 할 일도 부랑을 보 여내 선유 함을 샀더라 십이월 이십 칠일

십이월 이십 팔일

○법부 대신 립시 서리 조병식 알외터 본월 이십 팔일
조척을 함봉 함와 죄인 김윤식 리승오를 이 제 장척 잡아 오갓는디 허벌등이 다 이 중경 칙림 관인 고로 형틀 명레 데 이 심 팔조를 의지 하여 알외옵나이다 하였더니 십이월 이십 일 일 불
지 녀에 의주 하라 함을 샀더라 ○학부 대 신 조병식 알외터 리 무술 음양력을 장척 반사 함갓습는디
종실 종친과 중경 의정부 의정과 부부 원척 척 주림 관과 녀관과 밧 각도 판 찰스 목스 부스 부운 군슈 출스 외국 인 원의 게 처자 인건으로 반급 함을 이 었다 함을 논지 함 었더니 십이월 이십 일 불
지 녀에 의주 하라 함을 샀더라 ○중추원 의관 정주영 리교순 스직 상쇼
비지 녀에 쇼청은 의시 함을 시고 태학 유 성 진스 조제균등 언스 상쇼
비지 녀에 두 죄인의 일은 여분이 동연이 라 못당하 이 성로가 잇실 터이 나 이제 이 처분이 었지 침량이 업고 그리 하라 녀 의 등은 알고 물너 가라 함을 샀더라 십이월 이십 칠일 ○후능령 서정년 현능령 김병 훈서 판림관 철등 태능 참봉 한경리 혜 능 참봉 리의종서 판림관 팔등 ○중추원 의관 리호성 리정직 오주영 리지현 박시 순 안종덕 박승일 순창근 김유제 리용필 장승원 민후석 리지각 민용훈 민영만 조 과하 김병슈 민영조 김병길 리만교 리규 원 리종서 리건용 김용원 리민하 신좌균 리변인 리교석 서정철 민영슈 박정슈 심 구탁 심주탁 김진복 리석종 리석진 한창